

지하면서 긴박감 넘치는 화면을 연출했다. 트랜스폼 런칭 광고가 신선한 비주얼과 새로운 브랜드를 강조했다면, 이번 광고는 차 자체에 충실한 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 광고는 차체나 광고에서 걸맞은 부리기보다 자동차의 진정성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전달 방식에서도 진보적인 형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휘닉스컴, 디지털미디어 광고시장 본격 진출



종합광고회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광고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에 특화된 광고 대행사 ‘인터웍스미디어’를 설립했다.

인터웍스미디어는 온라인 광고를 시작으로 IPTV,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한다. 디지털미디어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 최적화된 광고 전송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미디어 Ad Network’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Ad Network’ 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일간지 약 16개사의 뉴스면 온라인 광고영역을 네트워크화 하여, 각 미디어사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영역에 동일한 규격으로 광고를 전송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광고주 비즈니스에 맞는 배너 광고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고있는 유저의 행동을 예측하여 타깃별 ‘정보형 광고’를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브랜딩 및 사이버PR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휘닉스컴은 금번 신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존의 광고 역량과 더불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통합 캠페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휘닉스컴은 인터웍스미디어 외에도 PDS미디어, 씨치앤씨치 PCI, 덴츠이노빅, 씨엔마케팅서비스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별 특화된 자회사들을 통해 급변하는 광고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최적의 광고주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HS애드, IGA웍스와 전략적 제휴

HS애드가 지난 6월 25일 국내 최초 게임내 광고(In-game Ad) 서비스회사인 IGA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인터랙티브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 이날 전략적 제휴 조인식은 LG마포빌딩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S애드 김종립 부사장과 IGA웍스 미국성 대표 간에 이뤄졌다.

게임내 광고 시장은 연평균 50% 정도 성장해, 2010년에는 약 8억 달러 규모가 예상되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MS와 구글이 각각 게임내 광고 업체인 매시브와 애드스케이프 미디어를 인수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내 게임내 광고 또한 약 2,000만 명의 안정적인 온라인 게임 인구를 기반으로 2008년 약 200억 원, 2010년 800억 원으로 매년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HS애드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확대함으로써 인터랙티브 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에서의 다각화를 통해 회사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지난 4월 1일 시명 변경과 함께 표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Hybrid Solution)*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HS애드 김종립 부사장(COO)은 “국내 No.1 게임내 광고 서비스 회사인 IGA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초기 단계인 게임내 광고 시장 등 인터랙티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광고주들에게 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 글로벌 청년봉사단 창단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을 출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 7월 11일 양재사옥 대강당에서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의 창단식을 갖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해외 파견에 나서 8월 말까지 총 500명의 인원이 중국, 인도, 터키, 태국, 헝가리 현지에서 환경, 지역복지, 의료, 음식문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청년봉사단의 단장을 맡은 현대기아차그룹 김용문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갈 미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경쟁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경험이 여러분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시야와 따뜻한 가슴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의 책임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글로벌 청년봉사단의 창단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와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것으로, 민간 해외봉사단으로는 국내 최대인 연간 1천명 규모로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각각 500명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